



2015 세계 장병·청년통일안보 비전발표대회에 참석한 군장병과 국내외 대학생 100여명이 캠프그리브스 DMZ 자전거 투어를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경기관광공사 제공

세계 청년들, DMZ서 한반도 평화통일 꿈꾼다

미군기지 리모델링 캠프그리브스서 통일 안보체험

세계의 청년들이 민통선 내 안보체험 숙박시설인 캠프그리브스를 찾았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2박3일 동안 캠프그리브스 DMZ 체험관에서 통일 안보체험 캠프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2015 세계 장병·청년 통일안보 비전 발표대회'에 참여한 군장병과 국내·외

대학생 총 24개 팀의 발표대회 참가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지난 29일 관문점, 제3땅굴, 도라전망대 견학에 이어 30일에는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정책위원장인 서강대학교 김영수 교수의 통일 안보 특강을 청취한 후 DMZ 자전거 투어에 나섰다. 세계 유일한 분단국

가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안보를 되새겨 보는 좋은 기회가 됐다.

마지막 날인 31일 도라산역과 CIQ 등 통일을 염원하고 있는 현장을 둘러보고 종합 토론을 가진 후 평화통일 기원 리본을 다는 것으로 캠프그리브스 체험 일정을 마감했다.

2015 세계 장병·청년 통일안보 비전 발표대회는 평화통일과 안보에 대한 세계 장병·청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

쳐 보이는 무대로 국방부가 주최하고 경기도, 경기관광공사, 파주시, 롯데시네마, 국가보훈처 등이 후원했다. 지난 5월 국내·외 예선을 거쳐 선발된 24팀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5일 동안 서울과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DMZ 체험관에서 본선 일정이 진행됐다.

캠프그리브스는 과거 미군기지를 리모델링한 국내 유일의 민통선 내 일반인 대상 안보체험 숙박시설로 비무장지대(DMZ)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에 위치, 최적의 안보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김동수기자

22.8 X 15.8 cm

중부일보

2015년 08월 03일 (월)
01B면 종합

세계 장병·청년 통일안보 비전 발표 대회 참가자 통일 안보체험 캠프 '2015 세계 장병·청년 통일안보 비전 발표대회' 참가자들은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2박 3일간 민통선 내 유일의 숙박시설인 캠프그리브스 DMZ 체험관에서 통일 안보체험 캠프에 참여했다.

사진:경기도청

22.9 X 9.8 cm